

수장 떠난 AIA생명… 대면채널 수익 안착 ‘흑자전환’ 과제

전체 신계약가치 전년과 비슷하지만 에이전시 채널은 두자릿 수 증가
방카슈랑스 부진 일부 보완한 셈
결손 해소+수익기반 확보 목표

황 네이슨 마이클 대표가 임기 도중 사임했지만 AIA생명의 대면채널 확대 전략은 이어질 전망이다. 외형 성장과 손실 축소 성과가 확인됐지만 영업적자와 누적결손이 남아 있어 차기 경영진에는 대면채널을 수익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4일 AIA그룹의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AIA생명의 자사 에이전시 채널(AIA프리미어파트너스) 신계약가치(VONB)는 설계사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VONB는 새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법인세율 변경 영향을 제외한 AIA생명 전체 VONB는 전년 동기과 대체로 비슷했다. 다이렉트마케팅 채널은 전년 수



AIA생명 사옥.

/AIA생명

준을 유지했지만 방카슈랑스에서는 달러보험 판매가 감소했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성장이 방카슈랑스 부진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황 대표 재임 중인 지난 2023년 9월 대면채널 확대를 목표로 출범했다. GA 통합공시를 보면 AIA프리미어파트너스가 모집한 AIA

생명 상품의 신계약 초기보험료는 2024년 317억원에서 지난해 617억원으로 94.7% 늘었다. AIA생명 상품 계약 건수는 1만8348건에서 1만7705건으로 3.5% 줄었지만, AIA프리미어파트너스 생명보험 초기보험료에서 AIA생명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90.6%에 달했다.

계약 건수보다 건당 초기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사 생산성 향상이 신계약가치 성장을 뒷받침했다. MDRT(백만달러 원탁회의) 자격을 달성한 마스터플래너도 2024년 232명에서 지난해 302명으로 30.2% 늘었다. AIA생명은 2027년 4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A생명은 AIA프리미어파트너스에 2023~2024년 총 930억원을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연 4.6% 조건으로 운영자금 250억원을 대여했다. 출자·대여가 이어지는 동안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영업수익은 2024년 579억원에서 지난해 1164억원으로 101.1% 증가했다.

손실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아직

흑자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410억원에서 207억원으로 49.5% 축소됐고 순손실도 320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누적결손금은 591억원, 자본총계는 336억원이다. 외형 확대 이후 추가 지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익 기반을 갖출 수 있는지가 다음 평가 기준인 셈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3년 임기로 연임됐지만 약 13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다. AIA생명은 황 대표가 개인적인 사유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자진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혜숙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며 AIA그룹은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AIA프리미어파트너스의 확대 전략과 목표가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회사GA는GA 대표가 경영전략을 짜고 이끌어가는 구조여서 AIA생명 대표의 사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 아파트 건설현장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가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및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직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을 나누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117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당시 초기 완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단지로 올해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1월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부터 안전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대표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안전에는 과하다”는 기준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장 여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성공 열쇠 ‘가족 동반 이주’

국토부,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추진
전국 준공후 미분양 3만 가구 육박
기관이전, 주택 수요로 연결 위해
가족 함께 생활기반 이주 이뤄져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기관을 나눠 배치하기보다 앵커기업·연구기관 등과 집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춘천시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에게 이주정착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경남도와 충북 제천시 등도 사무실 임대료와 정착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내걸었다.



전남광주특별자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특별자치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IS

이 같은 기대는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한 달 사이 2225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4만8694가구다.

공사를 마치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물량이 2만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지역 미분양은 1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마쳤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주택·상업시설이

늘고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근 원도심의 수요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에 달했다.

기관 이전이 주택 수요로 연결되려면 직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하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대상 직원 4만

8128명 가운데 실제 이주자는 3만4214명으로 이주율은 71.1%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로 더 낮았다.

특히 금융기관 이전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택과 상권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족 동반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룸·오피스텔 등 임차 수요에 머물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상권이 비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선정부터 실제 이주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정책이다. 당장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을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기관 이전과 별도로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 등 지방 시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장의 대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다른 시장 여건을 고려해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 등 지방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입주 가뭄’ 오나… 내달 물량 1만184세대, 31% 급감

수도권 6936세대 전월비 24% 감소
지방 물량 3248세대, 올해 최저수준

다음달 전국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특히 지역별로는 한 두 개의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는데 그쳤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84세대로 집계됐다. 전월(1만4701세대) 대비 30.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8.2% 적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936세대로 전월 대비 23.5% 줄었다.

서울은 3478세대가 입주한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가 물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파트(215세대), 성북구 보문동 보문센트럴아파트(199세대)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분양가격 기준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조합원 물량에 더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반포·방배 일대의 높은 주거 선호도로 입주 물량이 빠르게 소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단지 입주가 최근 매물 부족이 이어진 강남권 전월세시장에 공급 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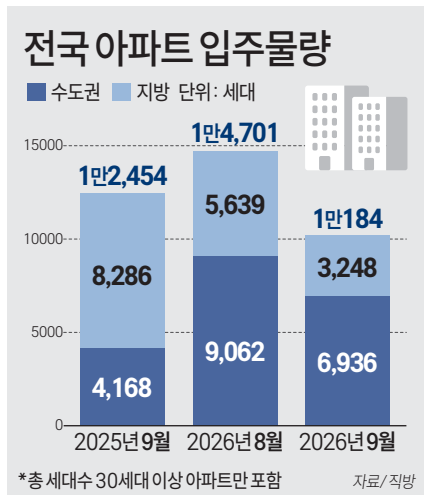
을 더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경기는 3332세대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릭이 1045세대로 가장 많고,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815세대, 양주시 회정동 화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 621세대 등이다.

지방의 입주 예정 물량은 3248세대에 그쳤다. 전월 대비 42.4%나 줄면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지방 입주 물량은 8만8161세대로 작년(12만 8301세대)보다 30% 이상 감소한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산월동 창원센트럴아파트가 1509세대 규모로 가장 많은



며,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신창1차광신프로그레스 450세대와 공주시 월송동 공주월송지구경남아너스빌 366세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아라타퍼스트543세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가입계좌 10만좌 돌파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결제뿐 아니라 남은 외화의 보관과 해외주식 투자까지 한번에 연결한 점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입 계좌수가 10만좌를 넘어섰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여행 전 외화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현지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 전 과정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에 보유한 외화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 남은 외화는 원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